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혜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386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김혜영,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윤기섭,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병운,
이봉준, 이상욱, 이숙자,
이승복,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진혁,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58명)

1. 주문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서울시의 의료관광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관광정책을 개발하여, 서울의 의료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의료법’ 개정, 2016년에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성장해 왔으며, 2023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환자 수는 연평균 2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 2023년 현재 60.6만 명으로 집계(보건복지부)되고 있음.
- 그러나, 전 세계 의료관광순위로는 14위에 머물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나 태국 등에 뒤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관광서비스의 경우에도 한류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의료관광 분야에서는 세계 메이저 국가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관광은 불법유치수수료, 불법브로커의 활동만연,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부족, 일부 국가에 편중된 외국인환자의 분포, 특정 진료과목 편중문제, 특화된 의료관광서비스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의료관광에이전시의 권리보장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관광 정책을 개발하고, 관리 감독하며, 의료관광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관광진흥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의료 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이송처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의료관광은 최첨단 의료시설과 서비스, 기술을 기반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단순히 치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휴양, 레저, 문화활동을 연계하는 서비스로 전 세계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고수익,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의료법’ 개정, 2016년에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성장해 왔다.
- 전 세계 의료관광의 시장규모(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4)는 2022년 1,15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32년까지 연평균 11.59% 성장해 3,46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연간 4,400만 명의 의료관광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산업이다.
- 우리나라의 외국인환자 수는 연평균 2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 2023년 현재 60.6만 명으로 집계(보건복지부)되고 있으나, 전 세계 순위로는 14위 수준(국제헬스케어리서치센터 조사, 2020년 기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에서는 태국이나 싱가포르보다 낮은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세계 최고이며, 관광서비스의 경우에도 한류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의료관광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처럼 대한민국의 의료관광이 아직 미흡한 이유로는 업계에 만연한 불법유치수수료 문제, 불법브로커의 활동,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부족, 일부 국가에 편중된 외국인환자의 분포, 특정 진료과목 편중문제, 특화된 의료관광서비스의 부재, 의료관광에이전시의 권리제한 등의 문제에서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2027년까지 연간 70만 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아시아의료관광 중심국가로 도약하며, 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제도정비를 진행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를 찾는 의료관광객의 88.9%는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서, 서울특별시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정확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은 시급히 필요하다.

- 이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의료관광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관련 기업, 관련 기관, 서울시 행정조직을 연계하여 의료관광 정책을 개발하고, 관리감독하며, 의료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책임있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결의한다.

2025. 1. 2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